

# 청년들이아, 도서관 너머 세상에서 길을 찾자

자전거로 아프리카 7000km 중단 정준오씨

## 中 광저우서 인턴 마치고 귀국...다시 취준생 "미래 막연하지만 여행을 통해 자신감 얻어"

똑같은 교복을 입고 수년간 공부해서 단 하루 시험으로 대학을 결정한다. 학점과 토익, 자격증까지 똑같은 길을 향해 달리다 보면 1등은 한 명뿐, 패배는 피할 수 없다. 정준오(31)씨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위한 길은 없는 것 같아 과감히 세계로 눈을 돌렸다. 중국 광저우 한 기업에서 6개월간 인턴생활을 마치고 최근 귀국한 그는 다시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돌아왔지만 실망보다는 내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88만 원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로 불리다가 이제 '청년 실신 시대'를 겪고 있다.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을 의미하는 청년실신시대. 그는 같은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길이 험난할수록 자신을 믿고 목표를 향해 우직하게 나아가는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사막에서 모래바람과 타는 듯한 열기를 이겨내고 7000km를 자전거로 종단한 경험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고 전했다.

"대학을 마치고 취업준비생으로 사회인

을 준비하는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로 떠난 이유도 힘든 여행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자전거로 누빈 거리는 7000km,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까지. 아프리카 7개 나라를 자전거로 종단하며 삶의 의미를 되짚게 됐다. 하루 100km씩 자전거로 사막을 이동하려면 설 새 없이 폐달을 밟아야 했다. 모래와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사막을 온종일 달리다 보면 사람에게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기도 여러 번. 중간에 만나는 사람은 오아시스처럼 반가운 존재였다.

해 저문 밤 남부 수단 사막을 달리다 우연히 찾은 마을. 가게를 발견했지만 강한 향신료 때문에 입에 맞는 음식이 없어 허기를 채울 수 없었다. 텐트를 치고 쓰러지듯 잠들려는 순간 한 아이가 다가왔다. 흑시나 하는 마음에 돈을 줄 테니 빵과 우

유를 구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러겠다고 했다. 이름도 모르는 아이에게 돈을 주고 1시간 넘도록 오지 않자 포기하고 잠이 들었다.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데 눈 앞에 돈을 받아간 아이가 빵과 우유를 들고 서 있었다.

"돈을 건넌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가게에 우유가 없어서 소 키우는 집에 가서 직접 짜서 오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말을 들었죠. 아이가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생면부지 남을 위해서 우유를 구해준 아이가 얼마나 정말 고맙았어요."

감동적인 경험도 있었지만 사실 아찔한 순간이 더 많았다. 해발 1600m 이상 고도에 있는 에티오피아 한 마을에서 고도 3600m에 있는 또 다른 마을을 향해 한나절씩 오르막길을 오를 때면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언덕을 오르느라 숨이 턱에 차오는 순간 갑자기 마을 아이들 10여 명이 에워싸고 돈을 요구했다. 우유를 건넨 아이와는 분명 다른 분위기가었다. 미안하다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돈을 던지며 쫓아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리나가 도망쳤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스무 살이 되던 해 처음 떠나 본 20일간의 중국여행은 '여행의 맛'을 알게 했다. 이후 인도와 필리핀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남부 수단에서 물을 얻기 위해 들른 마을. 주민들은 자전거로 사막을 넘는 정준오 씨를 응원해주며 훈훈한 인심을 보여줬다.

세계를 누볐다. 아직 취업준비생이란 신분이 불안하지만 막연히 걱정하지는 않는다. '취업'이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제갈 길도 다를 거라 생각해요. 아프리카가 위험하다고

"대기업, 공무원, 창업에 관한 주변에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례를 참고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제갈 길도 다를 거라 생각해요. 아프리카가 위험하다고

떠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청년들도 도서관과 책을 넘어 세상에서 길을 찾으면 좋겠네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호반건설, 동신대에 5억 기부

호반건설(회장 김상열·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일 동신대학교 학교법인 해인학원(이사장 문기정·일곱번째)에 발전기금 5억원을 기부했다.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동신대 부속실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발전기금 기부식에 참석해 문기정 해인학원 이사장에게 5억원의 발전기금 증서를 전달했다.

김상열 회장은 "동신대가 인성 교육과 학생 중심의 선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학으로 자리매김했듯이 앞으로도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한편 호반건설은 호반장학재단을 통해 지난 16년간 학생 6200여명에게 100여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 배우 수지 아너 소사이어터 가입

최근 한류스타 이민호와 열애사실을 밝힌 가수 겸 배우 수지가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터의 791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

수지는 지난 3월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기부를 약정했다. 1일 광주 공동모금회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수지를 대신해 부모님이 참석했다.

수지는 평소 난치병 환아 지원에 관심을 갖고 소아암 백혈병 환우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보육원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과 홀몸노인 복지

나눔에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세월호 피해지원 성금 5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익명으로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훈훈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방송-연예인으로는 7번째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이 된 그녀는 걸그룹 멤버로는 소녀시대 윤아에 이어 두 번째다.

수지는 "부모님을 통해 아너 소사이어터에 알게 됐는데 기부를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었다"며 "소아암 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



이들의 치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미스 에이로 데뷔한 수지는 2011년 KBS 드라마 '드림하이',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 2013년 MBC 드라마 '구가의 서' 등으로 KBS연기대상 신인상(2011), 백상예술대상 신인상(2012), MBC연기대상 최우수여자연기상(2013) 등을 수상했다. 특히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순수한 이미지 여대생으로 '국민첫사랑'이라는 애칭을 얻게 됐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기술이전사업 '전국 1위'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사진)는 지난 3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4년도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 평가 결과 전국 10개 기관 가운데 1등인 S등급을 받았고, 연구개발 지원단 지원사업도 A등급을 받았다.

1위를 차지한 광주센터는 성공적인 기술이전 프로젝트를 발굴·구사하고,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 등 실적에서도 다른 지역을 압도한다. 참여기관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등 사업운영에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교류협력센터는 1억7000만원에서 3억원까지의 계단식 국비지원 체제상 최고 S등급에 해당하는 사업비 3억원을 받게 됐다. 센터는 지난해 첫 사업공모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다. 이로써 광주에서의 기술이전사업은 미래부의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은 지역내 대학, 출연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개발했으나 사장(死藏)돼 있는 우수 과학기술을 지역



기업들에게 이전시켜 사업화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전국단위 공모 사업이다.

김권필 원장은 "소속 연구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유관기관들의 후원이 결집된 덕분"이라며 "우리지역의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물을 지역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성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생명나눔실천본부 화순전대병원에 성금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스님)가 최근 화순전대병원(병원장 조용범)을 방문,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화순전대병원 제공>

## 호남대 카지노 동아리 발대식 가져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카지노 동아리 '에이스 카지노' 지도교수 최우성·회장 장나래는 최근 관산캠퍼스 상하관 호텔경영학과 카지노 실습실에서 동아리 발대식을 가졌다. <호남대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박형원(자네지도시개발 고문)·구연옥씨 장남 세운군 김승훈·박복삼씨 장녀 윤정양=11일(토) 오후 1시 광주 남구 프라도호텔.

### 동창회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박찬갑) 4월 정기월례회=3일(금)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마리아주웨딩스퀘어 4층 에비뉴홀 062-384-7447.

▲광주 사대부중 제4회 동창모임=4일(토)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유명회관 062-512-5574.

▲목포고 제5회(회장 조보규)월례회=6일(월)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 중친회

▲전주 이씨 대동중약원 광주전남 지원 순천시분원 정기총회=2일(목) 오전 11시

순천시 석현동 탑웨딩홀 010-3621-2105.

▲경주 김씨 광주전남총회 이사회=6일(목)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 맞접 한겨레 010-6455-6296.

▲전주 이씨 대동중약원 광주전남지원 보성군분원 정기총회=7일(화) 오전 10시 30분 보성군 조성면사무소 2층 회의실 010-6514-5277.

▲함양 박씨 동정공 중증 집행부·고문·임원진 상건례=9일(목) 오전 11시 광주시 남구 백운동 동성회관 2층 010-7392-5055.

### 알림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

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 보호. 062-959-2340.

▲대한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 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속삭이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립센터 062-351-3029.

▲사랑마루합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모집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장인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원=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010-2727-1282.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형·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광주유교대학 학생=1학년 신입생 50명(강의시간 월수 오후 3시 30분~5시 30분), 2학년 편입생 20명(강의시간 화목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유교입문학 및 유교 경전 강의, 성별·학력·나이 제한 없음. 062-672-7008.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동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b>101호 故임순녀 님 (91/91세)</b> 子/子婦: /박갑순, /변성순 孫/孫婦: 신상봉, 신생분, 신종원, 신복순, 신옥순/정병기, 신선화/최성규 *발 인: 4월 3일 *장 지: 장성군 복일면 *연락처: 227-4385	<b>102호 故나정주 님 (남/74세)</b> 子/子婦: 나현주/김진숙 女/孫: 나용란/김석호, 나희선/윤재선 未亡人: 조호숙 *발 인: 4월 2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b>301호 故박춘수 님 (남/90세)</b> 子/子婦: 박갑주/이수민, 박병화/정경란, 박병욱/김경숙 女/孫: 박갑자/최순규 孫/孫婦: 박현우, 박진우, 박양우, 최기원, 최희호 *발 인: 4월 2일 *장 지: 담양천주교묘지 *연락처: 227-4381	<b>402호 故민성원 님 (남/88세)</b> 子/子婦: 민병우/엄준희, 민병이/김민희, 이병삼/최보람 女/孫: 민성희/강성찬, 민성화/고민석 *발 인: 4월 3일 *장 지: 남당선영 *연락처: 227-4314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부음**

▲김귀순씨 별세 김명식·영식·현식·애심·애자·애숙·애정씨 모친상=발인 2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김윤재씨 별세 양동선·동복·주현·총만·동인·선미씨 모친상=발인 3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이건성씨 별세 봉현·동현·정현·현옥씨 부친상=발인 3일(금)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